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전면적 건설시기 농업생산과 관련한 회의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박 일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으로 군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대회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전국적인 대회들을 조직진행하여 인민대중을 당과 혁명앞에 나선 과업수행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시기 농업부문의 여러 대회들을 조직진행하여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농장의 첫째가는 과업은 농사를 잘 지어 알곡을 많이 생산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전집》 제30권 102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전국관개부문일군열성자회의를 조직진행하도록 하시여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수리화는 농촌기술혁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서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52(196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알곡생산 특히 벼의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1964년안에 논관개면적을 62만정보에 이르게 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를 위하여 주체52(1963)년 10월에는 내각결정 제66호를 채택하도록 하시고 논관개면적을 늘이기 위

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으며 뒤이어 전국관개부문일군열성자회의를 열도록 하시고 논관개면적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대책들을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고 1964년안에 4만정보의 논을 더 풀어 논관개면적을 62만정보이상으로 늘이기 위한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받들고 농업부문에서는 논관개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논관개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는 황해북도 황주군안의 농민들이 앞장섰다. 그들은 불과 40일이라는 기간에 3 000여 정보의 논을 더 푸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평안남도 문덕군안의 농민들은 1 200정보의 논을 풀었으며 강원도 세포군, 함경남도 고원군안의 농민들도 여러개의 양수장을 새로 놓아 650 정보의 논을 더 풀었다.

관개부문일군열성자회의가 있는 후 전국적으로 반년동안에 늘어난 논관개면적은 해방전 우리 나라 총관개면적의 절반과 맞먹는 6만정보에 달하였으며 이해말에 이르러 우리 나라의 논관개면적은 64만정보로 늘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테제에서 제시하신 수리화의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1964년말부터 1965년 봄까지의 사이에 3만정보의 논면적을 더 늘이기 위한 전국가적인 관개건설전투가 벌어져 이 기간에만도 수십만정보의 논관개면적이 새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와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논관개면적을 70만정보로 늘일데 대한 과업이 빛나게 수행되었으며 나라의 저수지들에는 70만정보가 아니라 100만정보에 물을 댈수 있는 물원천이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전국모범트랙토르운전수대회를 조직진행하도록 하시여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적극 다그치도록 하시였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는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의 하나로서 농촌경리를 기계화하여야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다.

오래전부터 농촌경리의 기계화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많은 트랙토르가 생산되어 농촌에 공급되었다.

트랙토르는 주체50(1961)년에 3 500대(15hp으로 환산), 주체51(1962)년에 2 500대, 주체52(1963)년에 4 000대, 주체53(1964)년에 2 400대가 농촌에 공급됨으로써 주체53(1964)년말에 농촌경리의 기계화에 복무하는 트랙토르대수는 모두 수만대에 이르게 되었다.

트랙토르대수가 늘어나는데 맞게 트랙토르운전수대렬을 늘이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촌기계화에서 트랙토르운전수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주체53(1964)년 2월 전국모범트랙토르운전수대회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연설에서 트랙토르운전수들의 사명을 밝혀주시고 그들이 자기의 사명을 옹계 수행하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대회후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트랙토르운전수들은 자기들

의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농촌기술혁명에 적극 떨쳐나섰다.

평안남도 문덕군안의 농기계작업소 트랙토르운전수들과 수리공들은 과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새로운 방법을 창안도입함으로써 트랙토르부속품을 재생리용하는데서 혁신을 일으켰으며 여러가지 련결농기계를 새로 만들어 논갈이, 물써레작업능률을 더욱 높이였다.

강서, 숙천, 강동농기계작업소 운전수들과 수리공들도 새로운 논김매기기계와 경사지용트랙토르보습을 창안하여 논김매기와 산간지대 밭갈이작업의 기계화를 다그쳤다.

위대한 수령님의 여러차례의 현지지도를 받고 수많은 농기계들까지 받아안은 청산협동농장에서는 모든 농사일을 전면적으로 기계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청산협동농장의 모범을 따라 전국 각지에서도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농촌경리의 기계화가 적극 추진됨으로써 트랙토르에 의한 기계화작업의 가지수와 작업면적은 해마다 늘어났다. 주체52(1963)년에 트랙토르에 의한 기계화작업의 가지수가 30여종이었다면 주체53(1964)년에는 41종으로 늘어났으며 이 해 트랙토르에 의한 기계화작업량은 주체50(1961)년에 비하여 179%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협동농민들은 현대적농기계의 혜택으로 기계농사를 지을수 있게 되었으며 농촌경리의 기술적토대는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세차례의 전국농업일군대회를 마련하시여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56(1967)년과 주체57(1968)년, 주체58(1969)년에 해마

다 전국농업일군대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회들에 몸소 참석하시여 농업생산 특히 알곡생산을 높이고 농촌경리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알곡증산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에 무한히 고무된 전국 각지의 농업근로자들은 대회들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전국농업일군대회가 있는 주체56(1967)년에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우선 트랙토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이 빈틈없이 진행되었으며 토지개량사업과 포전정리사업도 힘있게 벌어졌다. 또한 고인물빼기공사가 전군 중적운동으로 진행되였다.

함경남도 홍상군 수흥리(오늘의 함주군 수흥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추운 겨울에도 쉬임없이 언땅을 파내어 제방을 쌓고 양수장을 건설하였으며 물길을 가져냈다. 그들은 주체56(1967)년 6월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후 고인물빼기공사를 다 그쳐 불과 보름동안에 3개의 배수양수장을 건설하고 동쪽에 1만㎡의 흙을 더 쌓아올림으로써 이 공사를 완전히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황해남도 농업근로자들은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한 공사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방대한 작업량을 해제김으로써 주체56(1967)년 여름 보기 드문 큰 비에도 불구하고 고인물을 제때에 빼내어 그 전해보다 수만t의 알곡을 더 내는 대풍작을 이룩하였다.

로동제급의 힘있는 지원밑에 주체56(1967)년 상반기동안에 전국적으로 총 3190개의 대상에 초당 515t의 고인물을 뺄수 있는 양수설비가 꾸려졌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5 000여리의 강하천을 가서내고 뚝을 튼튼히 쌓아올리였다.

이렇게 농업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의 결과 주체56(1967)년에 알곡생산량은 주체55(1966)년에 비하여 16%나 더 늘어나게 되였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주체57(1968)년에도 농업생산의 양양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미 마련해놓은 관개시설을 정비보강하는 한편 막대한 량의 고인물빼기공사와 강하천정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주변의 남새생산기지들에 새로운 형태인 분수식관수체계를 도입하여 발전면관개체계확립을 보충함으로써 어떠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농업생산에 대한 기업적지도, 기술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농사의 매 공정에 따르는 현대적과학기술의 성과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도 적극 벌어졌다.

농업기상과 토양작물 및 품종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에 기초하여 각 지방에서 이미 시험재배를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조속다수확체계의 우수한 품종들을 전국적범위에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농업생산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라서고 선진적인 영농기술이 광범히 도입됨에 따라 농작물의 단위당 수확고가 급속히 올라갔다.

주체57(1968)년에 논벼의 정보당 수확고는 주체56(1967)년에 비하여 550kg이나 늘어났으며 특히 평안남도에서는 956kg, 평안북도에서는 709kg이나 늘어났다.

그리하여 주체57(1968)년에 알곡 총수

확고는 주체56(1967)년에 비하여 111%로 높아졌으며 그중 논벼수확고는 113%, 강냉이수확고는 116%로 각각 높아졌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주체58(1969)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500kg씩 더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마련된 관개수리시설들을 알뜰히 정비보강하여 더 많은 물을 확보하였으며 물을 잡고, 빼고 그리고 논에 대고하는 매 공정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황해남도 청단군 청단협동농장에서는 규격식포전으로 정리된 논배미마다에 자동식논물조절기를 놓고 벼가 자라는 정도에 따라 임의로 물높이를 조절하면서 물을 대었으며 평안북도 구성지구에서는 벼가 자라는데 알맞게 물의 온도를 조절할수 있는 흐름식공급체계를 세웠다. 그리고 황해남도 신천과 평안남도 안주지구들에서는 양수장을 자동화하고 초당 수천t씩의 물을 뽑는 수문을 물의 힘으로 오르내릴수 있게 하는 등 수없이 많은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되었다.

남새밭에 분수식관수체계를 받아들이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회에서 제시하신 중요한 과업들중의 하나였다.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남새밭에 분수식관수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전투지휘부

가 조직되었으며 전투지휘부는 기관, 기업소들에 공사분공을 주고 수시로 공사추진정형을 총화지으면서 이 사업을 혁명적으로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단 몇달동안에 2000여대의 크고작은 양수기들과 설비들 그리고 연 5000리에 달하는 비닐관과 철관들이 남새밭분수식관개공사장에 들어갔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주변협동농장들에서는 시안의 로동계급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남새밭분수식관개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짧은 기간에 1000여정보의 남새밭에 분수식관수체계를 받아들이었다.

강선제강소(당시) 로동자,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그 주변협동농장들에서는 130여정보의 남새밭에 연 1만 8000여m의 관을 늘어 분수식관수체계를 받아들이었다.

이밖에 평양과 남포, 신의주, 강계, 함흥, 사리원, 원산, 개성, 덕천을 비롯하여 그 주변협동농장들의 남새밭에 분수식관수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이 사업을 주체58(1969)년까지 기본적으로 끝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농업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시기 우리 나라는 현대적인 농촌경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농업생산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